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실현 앞장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교육 기본방향 안내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학생생활교육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했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생활교육은 '소통과 공감의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평화롭고 안

전한 학교 구축', '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등을 3대 목표로 한다. 먼저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분야에서는 4개 세부과제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3월 첫 주 교육공동체 세움 주간 운영, 학생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 탐입 중심의 회

복적 생활교육 동아리 지원,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강화 등이 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분야에서는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내실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등 13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분야에서는 위(Wee) 프

젝트 운영 내실화, 또래 상담 활동 강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 6개 과제를 포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학교생활교육 내실화와 이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2019 학교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지난달 28일 대한드론축구협회와 드론축구 활성화 및 드론응용산업의 추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 - 대한드론축구협회, 드론축구 활성화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달 28일 (사)대한드론축구협회와 드론축구 활성화 및 드론응용산업의 추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전주대 이호인 총장과 (사)대한드론축구협회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향후 ▲드론축구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한 협력 ▲드론축구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협력 및 교류 활성화 ▲국내 및 국제 드론축구대회의 유치,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국내외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협력 ▲드론산업 연구개발 및 드론교육,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협약체 등의 구성을 통한 양 기관 간 구성원들의 교류 ▲기타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산학협력 4.0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산업분야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과 집중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전주시와 함께 2017년, 2018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축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봄꽃 같은 신입생들의 입학울 축하합니다”

전북대, 5566명 입학식 거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2019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김동원 총장과 처·실·국장·대학(원)장 및 대학 관계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김동원 총장은 2019학년도 입학대상자 5,566명(학사 4,241명, 석사 1,009명, 박사 316명)에 대한 입학축사를 했다. 또한 이기석(원예학과) 학생과 유학

생인 외키다준나 학생이 전체 신입생을 대표해 선서를 했다. 이어 우수 신입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와 간부 소개, 김동원 총장의 입학축사 등이 이어졌다. 김동원 총장은 입학축사를 통해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이라는 말처럼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달라. 실재에서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다"며 "여러분이 소망하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입학식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미래를 향해 패기의 젊음 마음껏 발산하길”

전주대, 신·편입생 입학식·오리엔테이션 진행

전주대학교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 까지 이틀간에 걸쳐 수퍼스타홀, 은누리홀 등 4개 장소에서 2019학년도 신·편입생 2,978명을 대상으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올해 입학식은 개강 전부터 학과 교수와 재학생, 신입생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을 중점으로 단과대학별로 진행했다. 1부 입학식은 총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단과대별 교수 소개, 신입생 선서, 새 출발 선언 및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각 단과대별로 교수와 재학생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무대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

보이며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08학번 선배 김영권 선수(김바오사카)가 환영 영상을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김 선수는 영상메시지를 통해서 "전주대에서 큰 꿈을 키우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신입생을 응원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이라는 슬로건처럼 학생이 꿈을 만들고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도울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갖고 끝없이 펼쳐지는 미래를 향해 패기의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수퍼스타홀, 은누리홀 등 4개 장소에서 신·편입생 2,978명을 대상으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초등교원 전입인사 사령장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지난 2월 28일 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부설초등학교 초등교원 전입인사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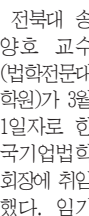
이번 초등교원 전입인사 대상자는 전주부설초등학교에 교사 5명, 군산부설초등학교에서는 정년퇴직을 한 홍석기 교장의 뒤를 이은 김왕규 교장을 비롯해 교사 7명이다.

초등교원 인사교류는 전북교육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및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원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양 기관은 최근 지역화라는 교육정책 흐름에 발맞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각종 현안사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김우영 총장은 사령장 수여식에서 "새롭게 우리 대학에 전입하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우리대학은 부설초등학교와 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이 협력할 것. 새롭게 오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학술대회 준비 매진할 터”

전북대 송양호 교수, 한국기업법학회 취임



전북대 송양호 교수 (법학전문대학원)가 3월 1일자로 한국기업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송양호 교수는 "올해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연보 제작과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주관점으로 학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10월에 개최할 국제 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기업법제의 흐름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하에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몽골 및 한국의 기업법제의 조화와 통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양호 교수는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비교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신학학회 부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홍보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1588 - 4477
www.jbbank.co.kr